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U-17 월드컵축구 내일 개막

결전의 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이 18일 한국-페루(수원), 북한-

잉글랜드(서귀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9월9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남북한은 사상 초유의 '동반 4강 신화'를 꿈꾸고 있다.

남·북한 사상 첫 동반 4강 꿈꾼다

한국, 평가전서 자신감 회복

▲박경훈 사단 '평정심·자신감 찾았다' = 박경훈 감독은 "마지막 두 차례 평가전이 모두 좋은 약이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대표팀은 지난 11일 잉글랜드와 비공개 평가전에서 0-4로 대패했다. 이어 13일 뉴질랜드를 맞아선 반대로 4-0 대승을 거뒀다.

박 감독은 "잉글랜드전도 내용상 진 경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페널티킥을 넣을 기회를 놓치고 추가골을 내주자 선수들이 평정심을 잃는 바람에 그냥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이라 흔들리기 쉽다. 본심을 앞두고 한 번 참패 경험을 해본 게 승리보다 귀중한 약이 됐다"고 말했다.

대신 뉴질랜드전에선 자신감을 되찾았다. 특히 후반 릴레이 골을 터트리며 한껏 기세를 올려보기도 했다.

▲부상 악재, 임기응변 전략으로 뚫는다 = 개막을 코앞에 두고 주전 왼쪽 날개를 맡아보던 김민우(연남고)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김민우는 빠졌고 이용준(현대고)이 대타로 엔트리에 들어왔다.

박경훈 감독은 오른쪽 윙백으로 뛰던 윤석영(광양제철고)을 왼쪽으로 돌리는 등 몇 가지 포지션 변화를 꾀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페루와 개막전에 이어 21일 코스타리카

(수원), 27일 토고(울산)와 A조 조별리그 2, 3차전을 갖는다. 일단 페루전이 열쇠다. 박 감독은 지난 5월 조 추첨을 하기 전에 이미 페루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

北, 잉글랜드전 '어게인 1966' 노력

▲북한 '어게인 1966' 중가 잡는다 = 안예근 책임감독이 이끄는 북한도 잉글랜드와 첫 판이 중요하다. 북한-잉글랜드전에는 자연스럽게 '어게인 1966'이라는 구호가 따라붙는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에서 중주국 잉글랜드를 1-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월드컵 8강 신화를 만들어냈다.

연령대가 달라졌지만 북한의 젊은 피들도 41년 전 대선배들이 이뤄놓은 신화를 기억하고 있다. 이 대회에선 본선에 처음 출전하는 잉글랜드보다

2007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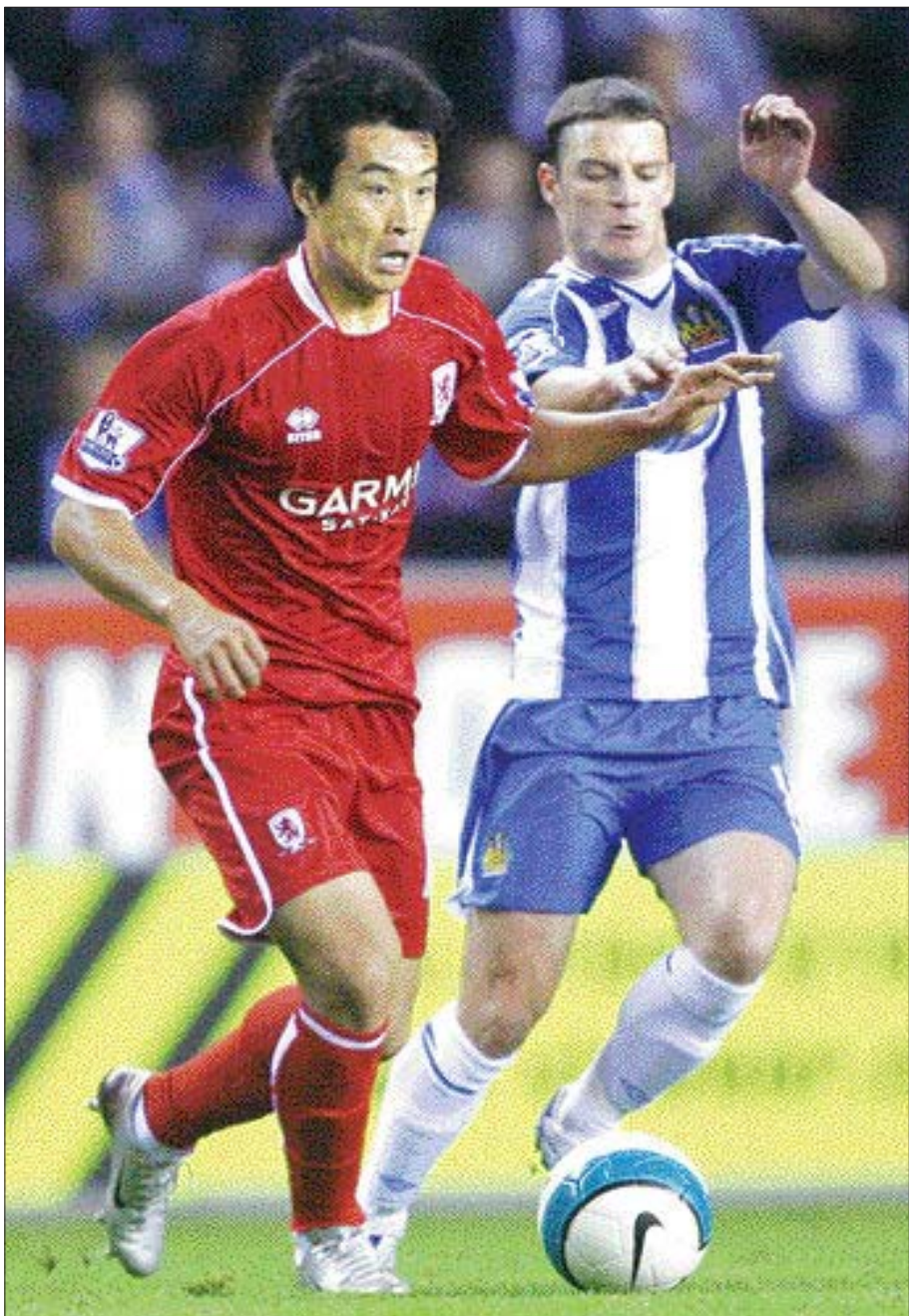
개최지: 한국
대회기간: 2007. 8. 18~31

A조	B조	C조
1 한국	1 북한	1 온두라스
2 페루	2 잉글랜드	2 스페인
3 코스타리카	3 브라질	3 아르헨티나
4 토고	4 뉴질랜드	4 시리아
D조	E조	F조
1 나이지리아	1 벨기에	1 콜롬비아
2 프랑스	2 튀니지	2 독일
3 일본	3 타지키스탄	3 튀니즈드레고
4 아이티	4 미국	4 카나

연말호기자 lion@kwangju.co.kr

북한이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잉글랜드는 유럽 축구 강호 중 청소년대표팀이 다소 약한 편이다.

북한은 전방 공격수 3인방이 주목받고 있다. 안일범과 리명준, 리상철은 작년 아시아선수권대회부터 맹활약했고 기량이 고르다는 게 강점이다. 잉글랜드에는 유럽 예선 공동 득점왕 비터 모제스가 경계 대상이다.



미들즈브러의 이동국이 16일 JJB 스타디움에서 열린 위건 애슬레틱과 원정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제이슨 쿠미스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레딩FC의 설기현이 16일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호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첼시의 미드필더 프랭크 램파드의 드리블을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후반기 첫승 목마름

내일 안방서 대구와 일전

전남, 제주 상대 원정경기

“후반기 첫 승은 언제 쯤...” 후반기 3경기서 승수를 챙기지 못한 광주 상무가 18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와 K-리그 17라운드전을 벌인다.

양팀은 2003년 K-리그 출범 동갑내기 광주를 역대 상대 전적서 1승4무9패를 기록할 정도로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할 상황은 아니다. 광주는 후반기 들어 수비라인이 강화되면서 실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광주는 지난 15일 강호 FC서울전과 맞붙어 무승부(0-0)를 기록,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황.

광주는 후반기 3경기동안 첫 대결인 부산전서 3실점, 두번째 대결인 성남전서 1실점, 최근 마지막 경기인 서울전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라인이 차츰 안정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강팀인 성남과 서울을 상대로 단 1실점에 그쳤다는 점은 광주의 수비진이 튼튼해졌음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다.

광주의 수비력은 지난 11일 성남전부터 김영근을 수비라인의 중앙에 배치하는 등 스타백의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그 위력이 살아났다.

김영근은 K-리그 152경기를 출전했고, 소속팀에서도 최고 출전기록을 보유하고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중간순위 (16일 현재)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성남	37	11	4	1	28	8	20
2	수원	31	9	4	3	26	17	9
3	전북	27	8	3	5	25	18	7
4	울산	27	7	6	3	20	15	5
5	경남	22	6	4	6	25	20	5
6	전남	22	5	7	4	17	16	1
7	서울	22	4	10	2	10	9	1
8	인천	20	5	5	6	18	20	-2
9	포항	20	5	5	6	14	18	-4
10	대전	19	4	7	5	18	17	1
11	대구	16	4	4	8	21	27	-6
12	제주	15	4	3	9	12	22	-10
13	부산	14	3	5	8	15	22	-7
14	광주	8	1	5	10	7	27	-20

있는 베테랑으로 광주 수비진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광주로선 대구 용병 공격수 루이지뉴가 부담스럽다.

최근 두 경기에서 3골을 기록중인 루이지뉴는 지난 4월 광주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정점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다. 다행인 점은 대구의 게임 메이커인 미드필더 이근호가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전력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한편 18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주말 경기는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 개막전 관계로 19일 오후 6시 서귀포 강창화경기장으로 변경됐다.

또 25일 오후 3시30분 여수 팔마운동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전남-광주전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순천 팔마운동장으로 조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적설·짧은 출전 시간 설기현·이동국 “힘들다”

후반 늦은 교체...주전 경쟁 '가시밭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태극전사 설기현(28·레딩FC)과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시즌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전 경쟁이 힘들어 것으로 예견됐지만 평가가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프리미어리그 2007~2008 시즌 2차전에서 설기현은 첼시전, 이동국은 위건 애슬레틱전에 각각 후반 교체 출전했다.

설기현은 후반 34분 들어갔고, 이동국은 후반 20분 교체 투입돼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물러났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키아스포츠는 설기현에 대해 “늦게 투입돼 경기를 뛰자마자 시간이 없었다”면서, 이동국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각각 평점 6을 매겼다.

레딩이 공격수 르로이 리타와 측면 미드필더 글렌 리틀의 부상 공백으로 공격 라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선발 오른쪽 미드필더는 존 오스터의 몫이었다.

오스터는 비록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전반 34분 오른쪽 슈팅이 골대를 맞

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다 설기현과 교체됐다.

설기현은 최근 풀백 이적설까지 끊어질 않으며 팀 내 입지가 불안한 처지다.

구단과 소속사로부터 합류령이 떨어진 듯 설기현은 경기 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설기현은 짧은 출전 시간에 대해 “아쉽

다. 선수들의 체력안배 차원에서 오늘은 덜 뛴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오른쪽 뒤편치 뺏고 각 제거수술을 받았던 설기현은 “현재 수술 부위는 괜찮다”면서 “최근 이적 등과 관련해 복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설기현의 에이전트인 쉐지센의 김동국 대표도 이적설에 대해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동국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블랙본 로버스와 개막전에서 후반 38분 교체 출전해 인저리타임까지 13분을 뛰는데 그친 이동국은 이번 위건전에서는 그나마 출전 시간이 조금 늘었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을 잡는 기회조차 적어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기대하기 힘들어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성화호 오늘 첫 소집

22일 올림픽 지역예선 우즈베크전 대비 훈련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베이징을 향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다. 박성화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올림픽대표팀은 22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을 위해 17일 정오 파주NFC에 소집돼 담금질에 들어간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이번 최종예선에 앞서 사령관 팀 베어백 감독을 포함해 일부 코칭스태프가 교체되는 등 진통을 겪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한국은 최종예선에서 강호들을 피해 우즈베크스탄, 바레인, 시리아와 한 조에 속해 비교적 대진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각 조 1위만 올림픽 본선 티켓을 가져갈 수 있어 결

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우즈베크스탄은 한국이 2차 예선에서 두 차례 맞붙어 모두 무릎 꿇린 상대지만 첫 경기라 역시 부담스럽다.

박성화호는 감독 교체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고 짧은 시간 내 응집력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올림픽대표팀의 주전 대부분은 박성화 감독과 함께 2005년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가했던 멤버들이라 선수 파악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소집훈련 명단 24명에 지난 달 캐나다에서 막을 내린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했던 ‘영건’들이 대거 포함돼 무한 주전 경쟁을 예고한 점은 고무적이다.



도 우승한 적이 없지만 수입은 지난해 1천900만 달러에 이르렀다”면서도 “연습장에서 샷을 잘못 날린 뒤 절을 하듯이 무릎을 꿇고 한숨을 내쉬었다”며 그가 아직도 아직도 손목 부상 후유증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